

여학우 부장을 임하며 -진앙체전 소감-

14학번 김소현

진앙체전이란 행사에 참가할 때 나에게 여학우 부장으로서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여학우들의 단합이었다. 철학과라는 과 특성상 여학우 인원이 다른 과와 비교하였을 때 많이 부족하였고 여학우 경기는 대부분 인원수를 철학과에 맞추어 진행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는 만큼 더 잘하고 싶었다. 그리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나의 부담감도 커져만 갔다. 그 부담감에는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학우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감에 있어 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진앙 체전에 있을 경기들을 위해 학우들과 많은 연습을 하였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일부 종목에서는 우리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진앙 체전의 날이 다가왔고 연습한 만큼만 하자며 경기에 나섰다. 우리는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특히 기대했던 종목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으면서 큰 실망감에 마냥 만족할 수만은 없었다. 그렇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으며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얼마든지 더 큰 기록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 또한 이번 여학우 부장 자리를 통해 책임감의 중요성을 다시

여학우 부장을 임하며(진양체전 소감) ■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나에게는 어떤 일이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나의 부족함이 우리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해보자는 말에 나를 믿고 경기를 뛰여준 모든 분들께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고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철학과 학우 분들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